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으로 쏠리는 가운데 행복의 본질은 점점 잊혀져간다. 그렇게 남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세우도록 자라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도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 매우 방어적이 되고, 밀리고 놀리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기 일쑤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나 무시하지 마!' '내가 그렇게 우습게(만만해) 보여?' '뒷방 늙은이 신세 취급하지 마라.' '\*\*\*면 다야?' '나(우리)를 뭐로 보길래,' '이래 봐도…….' '내가 누군지 알아?' '지가(제가) 짓 게) 뭔데.' '어따 대고…….'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말 다 했어?' '눈에 띄는 게 없어?' '두고 보자.'와 같은 표현이 오갈 때 인간관계는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된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개인에게 만족이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닌, 피곤한 힘겨루기가 되는 것이다.

#### [다]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자, 블루스의 발원지인 미시시피 삼각지의 중심지다. 블루스는 슬픔과 독창성과 다양한 음악적 전통의 혼합 속에서 탄생했다. 뉴올리언스는 백인과 흑인 간 빈부격차가 극심한, 분열된 도시다. 피부색에 따라 거주구역마저 분리된 이 도시에서 음악이라는 자산은 인종주의라는 깊은 결핍을 상쇄시켰다. 세컨드 라인 페레이드(뉴올리언스의 전통적인 춤이 결합된 브라스 밴드 페레이드)를 주관하는 '사회부조와 기쁨 클럽'은 남북전쟁 이후 장례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원과 우애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해방 흑인국(Freedmen's Bureau)'에서 나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제회'가 발전한 조직이다. 이 클럽은 지금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긴밀했던 시절의 여러 상호부조 형태 중 하나로, 뉴올리언스에 여전히 잔존해 있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상호부조와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묶어주는 유대가 의무인 동시에 축복임을 보여준다.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잦은 축제 속에서 전통과 고향과 서로에 대한 유대를 새롭게 다졌다. 페레이드의 이러한 순기능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 뉴올리언스 출신 재즈 거장인 루이 암스트롱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 페레이드 덕분에 뉴올리언스 전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외교적 특전을 누린 기억을 떠올리며 몹시 즐거워했다. 그는 경쟁 집단의 마을들,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던 백인 지구들을 누비고 다니며 연주를 했다. 페레이드는 당연히 곳곳을 돌아다니기 마련이고, 암스트롱이 젊었을 때 페레이드에 참가했던 연주자들은 거의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다. 이것이 암스트롱에게 '턱시도 브라스 밴드'와 함께한 초기 페레이드가 가장 행복한 기억인 이유다. 암스트롱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 뭐라도 된 기분이었다."

#### [라]

"다음 카드는 누군가요?" 레오가 통명스레 물었다.  
살즈만은 마지못해 세 번째 카드를 뒤집었다.  
"루스 K. 열아홉, 우등생. 마땅한 신랑감에게 현찰로 1만 3천 달러를 주기로 부친이 약속함. 부친 직업은 의사. 대단한 실력을 갖춘 위(뿔) 전문의. 형부는 의류 사업체 사장. 특출한 집안."  
살즈만은 비장의 카드라도 내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열아홉이라고 했습니까?" 레오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귀염성은 있나요?" 레오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예쁜가요?"  
살즈만은 자기 손 끝에 키스를 했다. "작은 인형이죠. 장담합니다. 오늘밤 제가 그 부친께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예쁘다는 게 뉘시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레오는 불안했다. "열아홉이 확실합니까?"  
"나이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부친이 출생증명서를 보여줄 겁니다."  
"무슨 하자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레오가 집요하게 물었다.  
"하자 있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그 나이의 미국 여자가 왜 중매인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살즈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댁하고 같은 이유로 저를 찾는 겁니다."  
레오의 얼굴이 빨개졌다. "전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고요."  
살즈만은 자기가 요령 없이 굴었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해명했다.  
"여자가 아니라 그 부친이 찾아왔습니다. 딸한테 최고의 신랑감을 구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마땅한 남자를 찾으면 딸한테 인사시키고 적극 밀어주겠습니다. 경험도 없는 어린 여자 혼자서 혼사를 떠맡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낫습죠.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까만."  
"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가 사랑을 믿으면 어떡하죠?" 레오가 걱정하며 물었다.  
살즈만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근엄하게 말했다. "사랑의 감정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생기는 것이지 그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 다음 면에 계속 >

[마]

줄리엣 그대의 이름만이 나의 적일 뿐이에요.  
 몬터규가 아니라도 그대는 그대이죠.  
 몬터규가 뭔데요? 손도 발도 아니고  
 팔이나 얼굴이나 사람 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에요. 오, 다른 이름 가지세요!  
 이름이 별건가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건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도 같은 향기가 날 거예요.  
 로미오도 마찬가지로, 로미오라 안 불러도  
 호칭 없이 소유했던 그 귀중한 완벽성을  
 유지할 거예요. 로미오, 그 이름을 벗어요,  
 그대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다 가지세요.  
 로미오 그 말 듣고 가질게요.

애인이라 불러만 준다면 다시 세례받은 뒤  
 앞으로는 절대로 로미오라 안 할게요.  
 줄리엣 누구신대 이렇게 밤의 장막 속에서  
 제 비밀과 마주치게 된 거죠?  
 로미오 이름으론  
 누구인지 그대에게 말할 수 없군요.  
 성자시여, 제 이름은 제가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대의 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써 났다면 찢어 버릴 겁니다.  
 줄리엣 그대 혀가 내놓은 말 내 귀로 마신 것이  
 백 마디도 안 되지만 그 음성은 알아요.  
 로미오가 아난가요, 그리고 몬터규요?  
 로미오 아가씨가 싫다면 어느 쪽도 아닙니다.

[박]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같은 사회 변화가 어떻게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를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즉, 관계는 교환의 결과로 발생한다. 물론 관계의 시장은 조금 특별하다. 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다.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신뢰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람들은 동반자에게 열정을 느끼는지가 아닌, 동반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묻게 되었다. 또한 그런 믿음직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묻게 되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려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의 일부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결혼 시장의 변화는 사랑을 할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야기한다. 여기서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자 결과물이 아닌, 비슷한 조건의 동반자를 찾는 선택의 결과로 여겨진다.

[사]

큐피드의 화살은 제멋대로이며 이유를 달 수 없는 감정인 사랑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다. 그래서 기욤 드 로리스는 그 화살이 몸과 살을 파고들어오면, 화살을 뽑아낼 수 없듯이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당에 무슨 이유를 들먹일까. 사랑은 그 자체로 볼 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강제하는 힘이다. 사랑의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을 압도한다. 이탈리아로 진격한 프랑스군 최고사령관 나폴레옹은 1796년 3월 30일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날은 단 하루도 없었소. 당신을 품지 않고 보낸 밤도 없었소. 내 인생의 영혼, 곧 당신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놓는 명예와 야심을 저주하지 않고서는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했소." 멀리 떨어져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이런 글을 쓰다니. 여기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존적 현실 자체를 통째로 장악하는 감정이다. 1812년 7월 6일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토벤은 자기 심경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했다. "내 영원한 연인이여, 내 천사이자 내 모든 것이며, 나 자신의 자아여!" 이처럼 사랑받는 대상은 사랑하는 주체와 떨어질 수 없다. 사랑의 경험은 자아를 총체적으로 끌어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문제 I] [마]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701자 이상 ~ 8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901자 이상 ~ 1000자 이하: 배점 60점]

< 끝 >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 I )문항

##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개]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내]

한국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희미한 가운데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비교하며 행복과 불행, 오만과 콤플렉스 사이의 왕복을 거듭한다. 귀천이나 우열의 가파른 위계 서열에서 상위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자존감을 찾으려 한다. 그래서 실제 자신이 처한 현실이나 맛있게 될 미래를 직시하면서 스스로를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천박한 통념과 허위의식에 사로잡힌다. 육체노동을 경시하던 조선 시대의 직업관이 자본주의 소비사회의 위계 경쟁과 맞물려, 차별의식이 더욱 첨예해져 일상에서 스스로없이 편견을 노출하면서 사람에게 모멸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나의 지인은 어느 중학교에서 급식 도구를 운반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교사 한 명이 멀리서 이분을 가리키며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손가락질당하는 사람에 대한 모멸이자, 동시에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도 모르는 상당수 아이들에 대한 저주이기도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직업으로 쏠리는 가운데 행복의 본질은 점점 잊혀져간다. 그렇게 남의 이목에 신경을 곤두세우도록 자라나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에도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일에 매우 방어적이 되고, 밀리고 놀리지 않기 위해 공격적인 언사를 퍼붓기 일쑤다. 바로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나 무시하지 마!’ ‘내가 그렇게 우습게(만만해) 보여?’ ‘뒷방 늙은이 신세 취급하지 마라.’ ‘\*\*\*면 다야?’ ‘나(우리)를 뭐로 보길래.’ ‘이래 봐도…….’ ‘내가 누군지 알아?’ ‘지가(제까짓 게) 뭔데.’ ‘어따 대고…….’ ‘너 도대체 몇 살이야?’ ‘말 다 했어?’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두고 보자.’와 같은 표현이 오갈 때 인간관계는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된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개인에게 만족이나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닌, 피곤한 힘겨루기가 되는 것이다.

[대]

뉴올리언스는 재즈의 고향이자, 블루스의 발원지인 미시시피 삼각지의 중심지다. 블루스는 슬픔과 독창성과 다양한 음악적 전통의

혼합 속에서 탄생했다. 뉴올리언스는 백인과 흑인 간 빈부격차가 극심한, 분열된 도시다. 피부색에 따라 거주구역마저 분리된 이 도시에서 음악이라는 자산은 인종주의라는 깊은 결핍을 상쇄시켰다. 세컨드 라인 퍼레이드(뉴올리언스의 전통적인 춤이 곁들여진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를 주관하는 '사회부조와 기쁨 클럽'은 남북전쟁 이후 장례식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지원과 우애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해방 흑인국(Freedmen's Bureau)'에서 나온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제회'가 발전한 조직이다. 이 클럽은 지금보다 사람들의 관계가 긴밀했던 시절의 여러 상호부조 형태 중 하나로, 뉴올리언스에 여전히 잔존해 있다. 그들의 이름 자체가 상호부조와 기쁨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를 묶어주는 유대가 의무인 동시에 축복임을 보여준다.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잦은 축제 속에서 전통과 고향과 서로에 대한 유대를 새롭게 다졌다. 퍼레이드의 이러한 순기능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 뉴올리언스 출신 재즈 거장인 루이 암스트롱이 있다. 그는 젊은 시절 퍼레이드 덕분에 뉴올리언스 전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외교적 특전을 누린 기억을 떠올리며 몹시 즐거워했다. 그는 경쟁 집단의 마을들, 특히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되었던 백인 지구들을 누비고 다니며 연주를 했다. 퍼레이드는 당연히 곳곳을 돌아다니기 마련이고, 암스트롱이 젊었을 때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연주자들은 거의 어디든 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다. 이것이 암스트롱에게 '텍시도 브라스 밴드'와 함께한 초기 퍼레이드가 가장 행복한 기억인 이유다. 암스트롱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난 뭐라도 된 기분이었다."

[문제 1]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상황에 대해 평가하시오. [701자 이상 ~ 800자 이하: 배점 40점]

###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의 '사회적 상호작용,' '비판적-문제 해결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사랑과 성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인간과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관계맺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인간관계와 사랑'을 성찰해 보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가]에서 [사]에 이르는 제시문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부터 사랑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맺음'에 관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한 조직이나 사회와 같은 공동체 안이나, 사적인 두 사람간의 관계 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의도하였다.

[문제 1]에서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태도들을 보여주는 제시문들을 선별하였다. 하나는 관계맺기를 가볍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인에 대한 풍자적 입장(제시문 [가])이며, 다른 한 관점은 한국 사회의 인간관계가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어 모멸감을 느끼기 쉬운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부정적 입장(제시문 [나])이다. 이러한 관점들은 공동체 속 상호부조와 축제를 통한 관계맺기 안에서 개인이 자유와 행복을 느끼는 것을 다룬 제시문 [다]와 대조된다. 이들 제시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관계의 양상이 변화한 오늘날 공동체와 인간관계 속 개인의 위치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을 묻기 위해 선별되었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다양한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행형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에 따른 [논제 II]를 출제하였다. 인간 실존의 본질적 질문 중 하나인 “관계맺음”과 그 한 형태인 “사랑”에 대해 묻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의 주제적 감상과 비평, 『독서』영역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가]	『고등학교 문학』 (“라디오같이 사랑을 쓰고 켤 수 있다면-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장정일	비상교육	2019	87	X
[나]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김찬호	문학과지성사	2014	107~108, 143~145	O
[다]	『이 폐허를 응시하라』	레베카 솔닛	펜타그램	2012	402, 404~405	O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의 변주인 장정일의 “라디오처럼 사랑을 쓰고 켤 수 있다면”이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발췌한 이 시는 원작의 꽃 대신 라디오, 버튼, 전파 등의 현대 문명이 발명한 소재를 활용해 현대 사회의 관계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길 원하지만, 라디오를 버튼 조작으로 크고 켜는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쉽게 만나고 헤어지길 원하는 것으로 보여 가벼운 사랑을 풍자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앞부분에서 타인과의 연결과 관계를 갈망했고, 버튼의 조작을 관계맺음의 주체인 나의 의지대로 할 수 있음을 바란다는 점에서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는 자유로운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이 시를 풍자로 해석하나, 문학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역시 현행 고교 교육과정에서 장려하고 있으므로 두 갈래의 해석 중 한 쪽을 [다]와의 관계 안에서 논리적 비약 없이 설명했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제시문 [나]는 사회학자 김찬호의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에서 발췌해 재구성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가 모멸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전개됨을 지적하는 이 제시문은, 위세 경쟁과 과시욕 등으로 개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눈치를 보는 현대인의 처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결국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추켜세우려는 공격적인 언어를 구사하게 되는 이런 관계에서는 개인이 자신만의 자유나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은 제시문 [다]와 대조를 이룬다.

제시문 [다]는 『이 폐허를 응시하라』에서 발췌해 재구성했다. 뉴올리언스의 퍼레이드와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느끼고 존중받은 루이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통해 공동체와, 그 속에서의 관계맺음을 통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 면모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올리언스의 뿌리 깊은 빈부격차와 인종주의는 개인을 억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의 주최측은 서로 돕는 것을 의무이자 기쁨으로 여겼다. 그로 인해 재즈와 블루스 같은 문화가 발달하고 개인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존중받을 수 있었음을 말해 관계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묘사한다.

[논제 II]은 제시문 [다]의 내용이 제시하는 관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나]에서 제시한 상황 또는 입장을 평가하는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태도를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논제 I] (701자 이상~800자 이하)

- 600자 미만: 감점 10점
- 600자 이상~650자 미만: 감점 5점
- 850자 이상~900자 미만: 감점 5점
- 900자 이상: 감점 10점

####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 1) [논제 II] (100점 만점/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 [다]와 [나]가 반대되는 관점임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비판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 [다]의 시각에서 [가]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적절하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
- ③ 비슷한 뜻의 문장을 반복하거나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했으면 10점 가점(창의성 및 표현력 등을 중시)

####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가], [나], [다]는 모두 인간관계 안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인간관계는 한 개인에게 행복과 기쁨, 안정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일 수도, 혹은 한 개인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가]에는 다른 이와 관계를 맺고 “전파”로 나와 타인 간 거리를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결국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입맛대로 켜거나 끌 수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풍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버튼의 조작으로 개인이 조절 가능한 인간관계는 관계의 피로함이 줄고 내가 원할 때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유롭고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결국 [가]는 [다]와 관계를 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되, 해석에 따라 [다]보다 좀 더 이기적이거나 느슨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한국 사회의 관계가 개개인에게 행복이 아닌 모멸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다룬다. 여기서 인간관계는 서로 눈치를 보고 피해의식에 시달려 스스로의 행복은 찾지 못하는 것으로, 이런 관계 안에서 개인은 공격받을까 전전긍긍해 타인을 말로 공격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모습은 [다]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관계의 모습과 대조된다. 제시문 [다]는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카트리나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은 뉴올리언스의 퍼레이드 이야기를 다룬다. 퍼레이드의 주최측은 오래 전부터 서로를 돕기 위한 끈끈한 관계맺음을 해 왔고 그로 인해 기쁨과 유대를 강화해 음악과 축제 같은 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개인은 즐거움과 행복 뿐 아니라 움직임의 자유를 얻고 자존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

- (2)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이 반대됨을 이해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 (3) 제시문 [가]와 [나], [가]와 [다]의 차이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높게 평가한다.
- (4)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5) 이 외에 각 지문에 대해 논리적이고 독창적인 해석이 보였다면 높이 평가한다.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 논제 1

1안:

[다]는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던 뉴올리언스에서 흑인들은 서로 돕는 것이 기쁨이라고 믿고, 이 유대감을 퍼레이드를 통해 강화했다. 퍼레이드는 인종차별과 같은 갈등상황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개인은 자유와 행복,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루이 암스트롱이 퍼레이드에 참여함으로써 어딜 가더라도 환영과 존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퍼레이드와 이를 이끈 공동체적 관계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찾는 [다]의 관점에서 [나]의 상황은 부정적이다. [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천박한 위계질서에 매몰되어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쉽게 모멸감을 안겨주거나,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공격성을 극대화해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만들어 낸다. 개인을 깎아내리고 피로감만 안겨주는 [나]의 인간관계는 [다]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와 연대의 순기능이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다.

[가]는 멀리 떨어진 타인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방식이 [다]의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가]에서 묘사하는 “나”와 “그”의 관계는 나의 경직되고 쓸쓸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마치 라디오 버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누르거나 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편의에 의해 내 입맛대로 결정된다. 상호부조와 연대가 의무이며 기쁨이라고 여기는 [다]의 입장에서 [가]의 마지막 두 행이 자기 원하는 때에만 취하고 버리는 가볍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771자)

2안:

[다]는 사람들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갈등과 분열이 상존하던 뉴올리언스에서 흑인들은 서로 돕는 것이 기쁨이라고 믿고, 이 유대감을 퍼레이드를 통해 강화했다. 퍼레이드는 인종차별과 같은 갈등상황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개인은 자유와 행복,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루이 암스트롱이 퍼레이드에 참여함으로써 어딜 가더라도 환영과 존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퍼레이드와 이를 이끈 공동체적 관계의 긍정적 면모를 보여준다.

[가]는 타인과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와 유사하다. 하지만 [가]가 추구하는 관계는 주체들의 능동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다]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유대와는 결이 다르다. [가]에서는 서로 떨어진 개인들이 전파처럼 서로에게 연결되기를 원하며, 그 관계가 나의 의지대로 내려놓거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것이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만이 존재하는 “라디오”라는 점에서, [가]는 퍼레이드라는 형식 안에서 보다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 [다]의 적극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반면, [나]의 상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찾는 [다]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다. [나]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천박한 위계질서에 매몰되어 있다. 개인은 타인에게 쉽게 모멸감을 안겨주거나, 자신이 무시당할까 봐 공격성을 극대화해 타인과의 갈등상황을 만들어 낸다. 개인을 깎아내리고 피로감만 안겨주는 [나]의 인간관계는 [다]의 입장에서 볼 때 관계와 연대의 순기능이 없는 억압적인 상황이다. (794자)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필답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체육계열 / ( II )문항

## 2.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래

“다음 카드는 누군가요?” 레오가 통명스레 물었다.  
살즈만은 마지못해 세 번째 카드를 뒤집었다.  
“루스 K. 열아홉. 우등생. 마땅한 신랑감에게 현찰로 1만 3천 달러를 주기로 부친이 약속함. 부친 직업은 의사. 대단한 실력을 갖춘 위(胃) 전문의. 형부는 의류 사업체 사장. 특출한 집안.”  
살즈만은 비장의 카드라도 내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열아홉이라고 했습니까?” 레오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귀염성은 있나요?” 레오가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예쁜가요?”  
살즈만은 자기 손 끝에 키스를 했다. “작은 인형이죠. 장담합니다. 오늘밤 제가 그 부친께 전화를 걸겠습니다. 그러면 예쁘다는 게 뭇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레오는 불안했다. “열아홉이 확실합니까?”  
“나이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부친이 출생증명서를 보여줄 겁니다.”  
“무슨 하자가 없는 게 확실합니까?” 레오가 집요하게 물었다.  
“하자 있다고 누가 그렇디까?”  
“그 나이의 미국 여자가 왜 중매인을 찾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살즈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댁하고 같은 이유로 저를 찾는 겁니다.”  
레오의 얼굴이 빨개졌다. “전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 거고요.”  
살즈만은 자기가 요령 없이 굴었다는 걸 깨닫고 재빨리 해명했다.  
“여자가 아니라 그 부친이 찾아왔습니다. 딸한테 최고의 신랑감을 구해주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마땅한 남자를 찾으면 딸한테 인사시키고 적극 밀어주겠습니다. 경험도 없는 어린 여자 혼자서 혼사를 떠맡는 것보다 이 방법이 더 낫습죠. 굳이 이런 말까지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젊은 아가씨가 사랑을 믿으면 어떡하죠?” 레오가 걱정하며 물었다.  
살즈만은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고 근엄하게 말했다. “사랑의 감정은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생기는 것이지 그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

줄리엣    그대의 이름만이 나의 적일 뿐이에요.  
 몬테규가 아니라도 그대는 그대이죠.  
 몬테규가 뭔데요? 손도 발도 아니고  
 팔이나 얼굴이나 사람 몸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니에요. 오, 다른 이름 가지세요!  
 이름이 별건가요?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건  
 다른 어떤 이름을 붙여도 같은 향기가 날 거예요.  
 로미오도 마찬가지지, 로미오라 안 불러도  
 호칭 없이 소유했던 그 귀중한 완벽성을  
 유지할 거예요. 로미오, 그 이름을 벗어요,  
 그대와 상관없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다 가지세요.

로미오    그 말 듣고 가질게요.

애인이라 불러만 준다면 다시 세례받은 뒤  
 앞으로는 절대로 로미오라 안 할게요.

줄리엣    누구신대 이렇게 밤의 장막 속에서  
 제 비밀과 마주치게 된 거죠?

로미오    이름으론  
 누구인지 그대에게 말할 수 없군요.  
 성자시여, 제 이름은 제가 미워합니다.  
 그것이 그대의 적이기 때문이죠.

줄리엣    만약에 써 났다면 찢어 버릴 겁니다.

줄리엣    그대 혀가 내놓은 말 내 귀로 마신 것이  
 백 마디도 안 되지만 그 음성은 알아요.  
 로미오가 아닌가요, 그리고 몬테규죠?

로미오    아가씨가 싫다면 어느 쪽도 아닙니다.

[배]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계급의 표식이 되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와 같은 사회 변화가 어떻게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가 가족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결혼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를 상품으로 보아야 한다. 즉, 관계는 교환의 결과로 발생한다. 물론 관계의 시장은 조금 특별하다. 이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결혼제도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반영한다.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은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신뢰의 바탕이 되는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사람들은 동반자에게 열정을 느끼는지가 아닌, 동반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묻게 되었다. 또한 그런 믿음직한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지 묻게 되었다. 좋은 동반자를 만나려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이러한 고려 사항들은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는 것의 일부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다. 결혼 시장의 변화는 사랑을 할 대상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야기한다. 여기서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자 결과물이 아닌, 비슷한 조건의 동반자를 찾는 선택의 결과로 여겨진다.

[사]

큐피드의 화살은 제멋대로이며 이유를 달 수 없는 감정인 사랑의 가장 오래된 상징이다. 그래서 기욤 드 로리스는 그 화살이 몸과 살을 파고들어오면, 화살을 뽑아낼 수 없듯이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당에 무슨 이유를 들먹일까. 사랑은 그 자체로 볼 때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강제하는 힘이다. 사랑의 경험은 사랑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현실을 압도한다. 이탈리아로 진격한 프랑스군 최고사령관 나폴레옹은 1796년 3월 30일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지낸 날은 단 하루도 없었소. 당신을 품지 않고 보낸 밤도 없었소. 내 인생의 영혼, 곧 당신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놓는 명예와 야심을 저주하지 않고서는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했소.” 멀리 떨어져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이런 글을 쓰다니. 여기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실존적 현실 자체를 통째로 장악하는 감정이다. 1812년 7월 6일 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베토벤은 자기 심경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했다. “내 영원한 연인이여. 내 천사이자 내 모든 것이며, 나 자신의 자아여!” 이처럼 사랑받는 대상은 사랑하는 주체와 떨어질 수 없다. 사랑의 경험은 자아를 총체적으로 끌어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문제 III] [라] ~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 중 한 입장을 선택해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901자 이상 ~ 1000자 이하: 배점 60점]

### 3.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출제 의도

2022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육계열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논술고사는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문학』의 ‘사회적 상호작용,’ ‘비판적·문제 해결적 읽기’ 영역, 『통합사회』의 ‘행복의 의미와 기준’ 영역, 『사회·문화』의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영역, 『생활과 윤리』의 ‘사랑과 성윤리’ 영역, 『윤리와 사상』의 ‘인간과 윤리사상 및 사회사상’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관계맺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인간관계와 사랑’을 성찰해 보게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가]에서 [사]에 이르는 제시문들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부터 사랑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계맺음’에 관한 논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선별되었다. 사회 구조 안에서 개인이 얼마나 자율성과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한 조직이나 사회와 같은 공동체 안이나, 사적인 두 사람간의 관계 안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하도록 의도하였다.

[문제 II]의 제시문 [라]에서 [사]는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입체적 사유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선별되었다. 주체와 낭만적 사랑을 강조하는 시각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계층적 배경에 맞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를 파악해 비판할 수 있는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라]는 낭만적인 사랑보다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제시문 [라]와 달리 낭만적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바]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계급의 표식이자 불평등 이해의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 가운데, 배우자 선택을 시장상황에서의 상품교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사]는 합리화 이전의 감성이 지배하던 (근대) 시대에 마법과 같은 낭만적 사랑의 전형으로 나폴레옹과 베토벤을 소개하는 사례를 다룬다. 두 번째 논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들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제시문 [라]와 [바]를 같은 입장의 글로 파악하고, [마],[사]의 입장에서 비판하거나, 혹은 제시문 [마]와 [사]를 [라]와 [바]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술고사는 응시생들이 다양한 제시문들의 핵심을 파악한 후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서술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각 텍스트를 개별적이며 독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와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성격이 다른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를 파악하고, 차이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수험생이 특정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논술 답안에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관점을 다른 제시문의 내용에 비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4.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문항 해설

본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의 정형적 패턴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논제 III]를 출제하였다. 인간 실존의 본질적 질문 중 하나인 “관계맺음”과 그 한 형태인 “사랑”에 대해 묻는 지문들을 선별하였다. 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의 주제적 감상과 비평, 『독서』영역의 주제 통합적 읽기 영역 등에 등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 출전은 다음과 같다.

제시문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재구성 여부
[라]	『인간의 가치 탐색』 (『마법의 통』)	버나드 맬러머드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151~152	○
[마]	『셰익스피어 전집 4』 (『로미오와 줄리엣』)	윌리엄 셰익스피어	민음사	2014	65~66	○
[바]	『결혼 시장: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회학』	준 카르본, 나오미 칸	시대의창	2016	23~24	○
[사]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	에바 일루즈	돌베개	2013	309~310	○

\* [마] 『로미오와 줄리엣』 (신정옥 옮김) 수록 교과서: 『고등학교 문학』(좋은책신사고, 2020) 154~155, 『고등학교 문학』(비상, 2019) 156~157.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라]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중핵교과 교재 『인간의 가치 탐색』의 「2장: 호모 에로티쿠스」에서 발췌하였다. 소설의 주인공은 중매쟁이 살즈만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자 한다. 주인공 레오는 사랑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배경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랑이 자신이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합한 상대를 만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제시문 [마]는 『셰익스피어 전집 4』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개인이 처한 부조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이 사랑의 경험은 서로를 기꺼이 내어주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초월의 경험이며, 동시에 자신의 처한 시대와 환경을 뛰어 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는 사랑이 계산이나 조건을 뛰어 넘는 새로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제시문 [바]는 『결혼시장』의 「서론」에서 발췌 및 수정 보완하였다. 이 제시문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가족은 계급의 표식이 되었고 배우자 선택은 계급의 유지와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작동하는 현대 사회의 경제적 시장과 같이 상품을 고르는 과정으로 간주된다. 자신에게 맞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기 위해 개인들은 자신의 학업, 직업 등 다양한 조건이 배우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은 사랑과 결혼이 개인의 낭만적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을 갖춘 동반자를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제시문의 입장은 사랑에 대한 사회구조적, 현실적, 교환론적 관점이다.

제시문 [사]는 『사랑은 왜 아픈가: 사랑의 사회학』의 「마법에 걸린 사랑」에서 발췌 및 재구성하였다. 이 제시문은 사랑이 개인의 통제할 수 없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감정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사랑은 마법에 걸리는 것과 같이 거룩하고 신비한 느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자아를 통째로 끌어들이며 움직이게 하는 신비한 힘이다. 사랑의 경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이며, 나폴레옹과 베토벤의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자기 감정의 고백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사랑은 계산하거나 교환할 수 없고, 개인이 현실을 극복하고 장악하게 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분리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신비로운 것이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낭만적, 초월적, 이상적 입장을 보여준다.

[논제 III]는 그동안의 정형적인 유형에서 벗어나, 네 개의 제시문을 제시하고, 입장이 같은 두 집단으로 분류한 후 한 입장을 채택하여 그 입장을 요약하고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제시문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한 입장을 정하여 다른 입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출제하였다.

## 5.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채점 기준

### 1. 점수 배정

- ① 만점 : 각 논제 당 100점(두 논제 도합 200점)
- ② 기본 점수 : 60점
  - 답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쓰면 60점
  - 백지 및 답안과 관련 없는 글, 특별한 표시는 0점
- ③ 기준 점수 : 상(100점~90점), 중(89점~70점), 하(69점~0점)

### 2. 채점 기준 : 정량평가

#### 1) 원고지 사용법

- ① 띄어쓰기를 포함한 원고지 사용법, 국어정서법에 관한 것은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나 현격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경우 채점위원의 재량에 따라 감점 처리한다.
- ② 예리한 문제 제기, 독창적인 구성, 탁월한 표현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③ 백지이거나 고의적으로 특별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 특별표시 여부는 해당 채점위원 전원의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

#### 2) 원고분량에 따른 감점

- ① 원고분량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술 내용을 중시)
- ② 아래의 기준으로 제시한 분량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지 않는다.
- ③ 지나치게 모자라거나 넘칠 경우에만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 [논제 II] (901자 이상~1000자 이하)

- 800자 미만 : 감점 10점
- 800자 이상~850자 미만: 감점 5점
- 1050자 이상~1100자 미만: 감점 5점
- 1100자 이상 : 감점 10점

#### 3) 원고분량에 따른 기타 기준

- ① 답안의 마지막 행에 한 자라도 쓸 경우 한 행을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답안 가운데 한 행 이상을 지우고 보충하지 않았다면 그 행은 공란으로 간주한다.
- ③ 주어진 필기도구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간주한다. (예: 연필로 작성한 부분은 무효 처리)

### 3. 채점 기준 : 내용평가

#### 2) [논제 III] (100점 만점/ 60점 기본 점수)

- ① 제시문을 사랑을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보는 [래]와 [바]의 입장과 사랑을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입장에서 보는 [마]와 [사]로 분류했으면 10점 가점
- ② 제시문을 [래]와 [바] 또는 [마]와 [사]의 입장으로 묶어 제대로 요약하였으면 10점 가점
- ③ 제시문을 [래]와 [바]의 입장에서 [마]와 [사]의 입장을 비판하거나, 또는 [마]와 [사]의 입장에서 [래]와 [바]의 입장을 비판할 때 논거에 따라 비판했으면 10점 가점

#### ※ 채점 시 유의사항

- 1) 제시문 [래]는 개인의 사랑의 감정보다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를 만나고자 하는 입장이 들어있다. 자유로운 사랑의 감정을 신뢰하기 보다는 여러 사람이 판단한 조건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고자 한다. 사랑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결혼을 하기보다는,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사랑이 비로소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 (2) 제시문 [마]는 원수 가문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이름을 넘어 서로가 가진 사랑의 감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입장이 들어있다. 이들은 당시의 사회적 제약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꺼이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자 한다.

- (3) 제시문 [바]는 사랑을 순수한 감정으로 맺어진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 거래로 본다. 친밀한 관계를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으로 보고, 결혼을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가진 동반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간주한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사회구조적 (사회학적, 현실적, 교환론적) 입장을 보여준다.
- (4) 제시문 [사]는 사랑을 조건이나 이유 없이 발생하는 순수하고 초월적인 감정의 결과로 본다. 사랑은 전쟁과 같이 주어진 현실을 뛰어넘어 현실을 장악하게 할 수 있는 힘이고,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몰아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낭만적 (초월적, 이상적) 접근을 보여준다.
- (3) [마]와 [사]의 입장에서 [라]와 [바]의 입장, 또는 [라]와 [바]의 입장에서 [마]와 [사]의 입장을 제시문에 등장하는 핵심어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조리 있게 비판하고 있으면 높게 평가한다.
- (4) 각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통일감 있고 조리 있게 서술하였는가를 중시한다.

## 6. 2022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

### [라], [바]의 관점에서 [마], [사]를 비판하는 경우

[라], [바]의 입장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사회구조적 접근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사랑할 사람 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개개인의 조건이다. 마치 [라]에서 레오가 신붓감을 고를 때 나이와 외모 등 조건을 따지고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들은 결혼을 할 때 시장에 나온 물건을 고르듯 자신에게 더 나은 만족감을 주는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바]는 이러한 선택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닌 개인이 갖춘 조건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라]에서 살즈만이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 감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교육, 직업,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배경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라], [바]의 사회구조적 입장에 따르면, [마], [사]의 입장은 사랑에 대한 현실성이 결여된 접근이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중요할 수 있는데,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은 감정의 강렬한 첫 끌림에만 기초할 경우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요소를 단순화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마]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문과 자기 이름을 버리고 사랑을 맹세하지만, [라], [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의 열정은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자칫하면 사랑이 오래 지속되지 않거나 개인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사]는 사랑이 개인을 강제하는 감정이라고 말하는데, 개인의 명예로운 성장을 위해 야심을 거절하고, 타인의 자아를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개인의 비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비판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마], [사]의 관점은 사랑 역시 사회에 기반해 있다는 [라], [바]의 현실 인식을 간과한 것이라 비판받을 수 있다. (972자)

### [마], [사]의 관점에서 [라], [바]를 비판하는 경우

[마]와 [사]는 사랑에 대한 주체적이고 낭만적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랑은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개인과 진정한 유대를 만들어가는 힘이다. [마]는 서로의 가문이 원수관계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러한 한계에 개의치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다룬다. 줄리엣은 이름이 한 개인을 이루는 모든 것이 아님을 알고 있고, 장미의 향이 변하지 않듯 개인 그 자체가 중요하다 말한다. 이렇게 조건이 아닌 개인과 감정에 충실한 이들의 사랑은 두 가문의 갈등관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한다. [사] 역시 사랑은 큐피드의 화살처럼 강렬하고 절대적인 힘을 지닌 것이라고 말한다. 나폴레옹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잊지 않았고, 베토벤은 사랑하는 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몰아의 경지를 보였다. 이들의 사례를 볼 때, 사랑은 개인과 현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다.

[마], [사]의 입장에서 볼 때 [라], [바]는 사랑을 도구화하고 이혜타산적인 거래로 전락시키고 있다. [라]에서 레오와 살즈만은 여성의 나이와 집안, 지참금 등을 따지며 마땅한 상대를 만나야만 사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그 자체가 아닌 수단과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마], [사]는 [라]가 사랑을 나이, 배경, 능력 등에 근거한 조건적이며 이기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바]의 입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진행되는 현대 사회의 경제 구조가 그대로 결혼에도 영향을 미쳐, 마치 시장에서 상품을 고르듯이 배우자를 선택하게 됨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마], [사]의 관점에서는 지나치게 현실의 조건에 파묻혀 인간을 상품화하고, 사랑이 주는 가능성을 무시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다. [라], [바]처럼 사랑이 순수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비슷한 조건에 따른 동반자를 찾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사랑과 결혼을 자기 개인의 명예나 계층 유지, 신분상승의 도구로 이용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980자)